

이 땅의 스승들은 오늘도 훌륭한 제자들을 길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 스승으로 불리는 이들도 과거에는 누군가의 제자였고, 스승의 발걸음을 이 정표 삼아 지금에 이르렀다.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과거 자신이 공부하고 훈련받았던 곳에서 교육·훈육의 길을 걷고 있는 군인들을 소개한다.

육군3사관학교 이준석·강구한·이진학 소령

교수·교관·훈육관으로 모교서 후배 지도

## 스승의 은혜 덕분에 스승의 길을 갑니다

올바르고 유능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  
생도 시절 만난 스승 본받아 활기차게 군 생활

육군3사관학교(3사) 이준석·강구한·이진학 소령은 생도 시절 만난 스승을 통해 군 생활의 새로운 꿈을 갖게 됐다. 이들은 각각 3사 교수, 교관, 훈육관으로 후배들을 정예장교로 양성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이준석(3사 39기) 소령은 생도 시절 가르침을 받았던 스승의 영향으로 전공인 전산정보처리학과(현 컴퓨터학과) 공부를 이어갔다. 그는 “학과 교수님이었던 김기안 교수님은 누구보다 엄격했고 전문성도 높으셨다”며 “사석에서 고민을 말씀드리면 공감해 주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던 모습에서

생도를 사랑하는 진정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 소령은 2009년부터 모교 교수로 재직하며 이미지 프로세싱, 인공지능(머신러닝) 분야를 가르치고 있다. 생도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어 감사하다는 이 소령은 “얼마 전 내가 가르쳤던 생도가 학교 교수로 선발됐다”며 “과거에는 교수와 생도로서, 지금은 함께 학문을 연구하며 군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사실이 뿌듯하다”고 전했다. 독도법 교관 강구한(3사 42기) 소령은 지

난해 학교 우수 교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강 소령은 생도 시절 풍부한 군사적 지식을 갖춘 교관들을 롤모델로 삼고 교육에 임하고 있다. 강 소령은 “한 생도가 지난해 하계군사훈련 기간 내내 찾았을 적이 있다. 수업과 훈련으로 힘들었을 텐데 그 생도는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 있으면 일과 이후나 주말에도 찾아와 질문했다”며 “이렇게 노력하는 후배 생도들을 볼 때 가장 보람있다”고 밝혔다. 57·58기 생도들을 훈육하고 있는 이진학(3사 43기) 훈육대장은 생도 시절 늘 흐트



전우들과 함께

러짐 없이 카리스마 넘쳤던 당시 훈육대장을 보며 꿈을 키웠다. 그는 중대장 시절 부대원들과 뛰어난 팀워크를 바탕으로 특수전사령부 탑팀(Top-Team)에 선정됐으며 2012년에는 타의 모범이 되는 중대장에게 주어지는 ‘재구성’을 받기도 했다. 2019년 훈육대장으로 선발돼 모교에서 재직 중이다. 돌아가신 아버지도 3사(15기) 출신인 이 소령은 “아버지께서는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으로 ‘자율성·창의성·책임감’을 항상 강조하셨다”며 “그 가르침을 본받아 생도들이 세 가지 덕목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하

▲ 과거 공부하고 훈련받았던 육군3사관학교에서 교수, 교관, 훈육관으로 각각 임무 수행 중인 이준석·강구한·이진학 소령(오른쪽부터)이 후배이자 제자인 생도들이 선물한 케네디션을 가슴에 꽂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부대 제공

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세 사람은 분야와 역할은 다르지만, 생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지도한다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토대로 후배이자 제자인 생도들이 정예장교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한영 기자

부사관 후보생과 담임교관으로 만나 지금은 옆 중대 담임교관으로서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이들도 있어 눈길을 끈다. 육군부사관학교 하선에 상사와 이슬 중사가 주인공이다.

## 사제지간에서

육군부사관학교  
선후배 교관 하선에 상사·이슬 중사  
정에 전투부사관 육성에 매진

두 사람의 인연은 이 중사가 부사관 후보생이었던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꿈이었던 이 중사는 부사관 육성의 요람인 육군부사관학교에 입학했다. 입교 후 처음 만난 사람이 담임교관이었던 하 상사(당시 중사)였다. 하 상사의 인상은 첫 만남 때부터 강렬했다. 이 중사는 “매사 자신감 있고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칼 같은 교관이셨다”며 “‘호랑이 교관’으로 불릴 만큼 후보생들에게 엄격하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이 중사는 하 상사에게서 자신이 평소 되고 싶던 참군인의 모습을 봤고, 닮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엄격함 속에 숨은 인간적인 면모도 이유가 됐다. 하 상사는 매일 이른 아침 출근해 후보생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시작으로 아침 점호 때는 후보생들과 일일이 눈을 마주치며 덕담을 해줬다. 이 중사는 “모든 교육생을 자식처럼 아껴 주시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며 “교육훈련 중 힘들어하는 후보생을 다그치기보다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말로 용기를 주는 하 상사의 훈육 방법과 철학을 통해 담임교관의 진심을 느꼈고 존경심이 절로 나왔다”고 전했다. 하 상사의 영향으로 이 중사는 후보생 시절부터 담임교관이 되고 싶다는 또 하나의 목표를 세웠다. 이 중사는 임관 후 첫 부임지였던 27사단에서부터 하 상사와 주기적으로 연락하며 교관이 되기 위한 노하우를 전수했다. 사단에서 분대장, 참모부 담담관, 직사화기 소대장 등의 임무를 수행하던 이 중사는 2018년 훈련부사관에 지원했다. 교육을 수료한 이 중사는 꿈에 그리던 부

## 이제는 힘이 되는 동료로...

사관학교 담임교관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후보생과 교관으로 만났던 두 사람이 6년 후 선후배 교관이자 동료 전우로 조우한 것이다. 이 중사의 훈육 방법이 하 상사와 비슷하다 보니 ‘리를 하선에’로 불리기도 했다. 두 사람은 현재 다른 중대에서 담임교관으로 복무 중이다. 후배 양성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이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다. 하 상사는 “교관 직책은 누군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역할”이라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교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사는 “좋은 스승이 있었기에 현재의 내가 존재할 수

있었다”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애정과 정성을 다해 정에 전투부사관 육성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최한영 기자



▶ 육군부사관학교 담임교관으로 함께 후배 부사관 양성에 힘쓰고 있는 하선에(오른쪽) 상사와 이슬 중사. 사진 제공=이정민 대위



지난 2018년 훈련부사관 임명식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하선에(왼쪽) 상사와 이슬 중사. 부대 제공

스승님과 함께

## 전동킥보드 사고자 구조 도와

육군2신속대응사단 옹호여단 이우섭 중사  
응급조치 후 구급대원에 인계...구급법 교관 임무 도움

자칫 인명사고가 발생할 뻔했던 현장에서 신속한 응급조치로 시민 생명을 구한 육군 간부가 귀감이 되고 있다. 육군2신속대응사단 옹호여단 이우섭 중사가 주인공이다. 이 중사는 지난달 27일 귀가하던 중 집 근처 공원에서 앞바퀴가 분리된 전동킥보드를 발견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이 중사는 주변을 살피던 중 안면과 후두부에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다. 이 중사는 먼저 환자가 의식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를 확보한 다음 119구급대에 신고했다. 뒤이어 출혈 부위 2차 감염, 척추 손상 등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지 않도록 계속 말을 걸었다. 이 중사는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에게 사고자를 인계하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현장에 남아 있던 전동킥보드는 따로 보관해 다음 날 보호자에게 돌려줬다. 환자의 아버지는 이 중사에게 고마워하며 사례 의사를 전했으나 이 중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거절했다. 이 같은 사실은 사고자가 퇴원 후 부대에 감사 인사를 전해오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중사는 “구급법 교관으로 임무를 수행했던 경험이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희현(소장) 사단장은 위급한 순간에 국민 생명을 구하는 데 망설임 없이 달려간 이 중사에게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최한영 기자



신속한 응급조치로 시민 생명을 구한 육군2신속대응사단 옹호여단 이우섭 중사가 부대에서 구급법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이두화 대위

## 투병 부친에 간이식 ‘당연한 일’

육군5사단 독수리여단 용틀임대대 강재선 중사  
10시간 대수술 성공 “부대 복귀하면 맡은 임무 성실히 수행”

간암 투병 중인 아버지의 건강 회복을 위해 망설임 없이 자신의 간을 내놓은 육군 간부의 효심이 감동을 전하고 있다. 육군5사단 독수리여단 용틀임대대 강재선 중사는 지난 10일 10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60%의 간을 아버지께 성공적으로 이식했다. 강 중사의 아버지 강대욱 씨는 간경변증(간이 굳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는 병)이 약화해 간암 초기로 발전한 상태였다. 강씨는 이미 지난해 12월 간의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간 이식만이 건강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남았다. 이에 강 중사는 간이식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조직·정밀검사를 받았다. 간이식 적합 판정을 받은 강 중사는 망설임 없이 수술대에 올랐고, 아버지 강씨는 빠른 속도로 건강을 되찾는 중이다. 강 중사도 병원에서 회복에 전념하고 있으며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부대로 복귀해 맡은 임무를 다시금 성실히 수행할 예정이다. 강 중사와 같이 근무하는 윤다운 대위는 “강 중사는 평소에도 모범적이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주변 선후배 동료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며 “아버지에 대한 강 중사의 따뜻한 사랑과 용기가 부대 전우들에게 귀감이 돼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강 중사는 “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되면 예전처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며 “부대에서 수술을 위해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배려받은 만큼 앞으로도 부대와 전우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한영 기자



암 투병 중인 아버지께 자신의 간을 이식한 육군5사단 독수리여단 강재선 중사. 사진 제공=한영태 대위(진)